

2008년도 시멘트 결산서

김 재 열 (한국양회공업협회 기획팀 과장)

1. 2008년 국내 경제동향

올해 세계 경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과도한 유동성 공급 확대하에 금융회사와 감독기관의 위험 관리 시스템 부재로 인한 금융부문의 전세계적 신용 경색 및 유동성 위기 확산으로 실물부문의 경기침체 및 경제성장 동력 상실로 전이되면서 2007년 5.0%의 성장에서 크게 둔화된 3%대의 성장이 예상되며, 상반기 중 5.3% 성장한 우리 경제는 하반기 들어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증가세도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3% 중반대로 급락하여 연간으로는 4%대 초반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진다.

민간소비는 2007년말 이후 소비관련지표들의 둔화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부진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최근의 소비증가세 둔화는 실질소득 감소, 금융시장의 불안증대 및 고용불안심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연간으로 2%대 초반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상반기의 국제 원자재가격 및 환율 상승에 따른 자본재 수입 비용 증가에 주로 기인하여 2007년 하반기 이후 둔화세를 지속하는 모습으로 정보통신(IT) 부문의 증가세 둔화가 최근의 설비투자 부진을 주도, 전년의 7.6% 증가에서 크게 둔화된 1%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보여지며, 주거용 건물건설 부문의 침체에 따른 건설투자의 부진은 금년 들어 3분기 연속 감소한데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 뿐만 아니라 3/4분기 중 주택건설

실적도 주택경기 회복의 지연 및 미분양 물량의 누적으로 인해 전분기에 비해 위축되는 모습으로 당분간 건설투자는 부진한 상태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원유도입단가의 급락에 따른 수입증가세의 하락으로 무역수지는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나 수입증가세가 수출증가세를 상회하면서 3/4분기까지 경상수지는 고유가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큰폭으로 축소, 적자기조를 지속하여 전년의 흑자기조에서 금년은 100억달러 수준의 적자가 예상되며, 금년 들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던 물가는 최근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세에 힘입어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이나 전년의 2.5%를 크게 웃도는 4% 후반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금융시장은 국제 금융시장 위기의 여파로 인해 전반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정책당국의 개입으로도 완화약세 기조가 지속되는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여 경기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2008년 국내 건설동향

금년 하반기 들어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대되면서 선진국 경기가 동반 둔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기 또한 침체국면으로 진입이 예상되자 이러한 국내 경기의 급락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6·11 미분양 종합대책”부터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이르기까지 각종

〈표-1〉 연도별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10월		
					2008년 1~10월	전년대비	
용도별	주거용	50,099	50,281	53,861	65,278	27,178	56.8
	상업용	30,966	23,368	32,570	35,710	28,434	98.6
	공업용	14,740	13,576	16,813	16,330	15,931	116.1
	교육사회	8,860	9,862	11,340	12,284	11,522	109.4
	기타	12,796	14,419	18,687	21,453	13,469	79.1
구조별	철골조	115,526	110,203	131,064	147,931	94,120	81.6
	조적조	1,551	1,073	1,626	2,181	1,684	90.5
	목조	383	229	474	750	689	109.7
	기타	1	1	107	193	41	23.4
합계	117,461	111,506	133,271	151,055	96,534	81.7	

* 자료 : 국토해양부

방안과 대책 등으로 건설경기 진작을 통한 내수회복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11월말 현재까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설경기 침체 원인으로서는 최근 국내 건설수주의 감소로 인한 물량 부족, 미분양 아파트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로 인한 건설업체의 현금 유동성 압박, 최저가낙찰제 공사 확대와 경쟁심화에 따른 턱키, 민자사업 등에 대한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이로 인한 심리적 위축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부동산 규제의 완화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건축/토목)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1월(11.7% ↑), 2월(10.5% ↓), 3월(24.2% ↓), 4월(26.9% ↑), 5월(11.6% ↓), 6월(2.8% ↓), 7월(8.3% ↓), 8월(27.3% ↓), 9월(3.3% ↓), 10월(60.3% ↓)으로 1~10월 누계치는 96,534천㎡로 전년동기대비 1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월의 감소폭이 큰 것은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이를 회피하려는 물량이 전년 10월과 11월에 걸쳐 급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용도별로는 주거용(27,178천㎡, 43.2% ↓), 상업

용(28,434천㎡, 1.4% ↓), 공업용(15,931천㎡, 16.1% ↑), 교육사회용(11,522천㎡, 9.4% ↑), 기타(13,469천㎡, 20.9% ↓)으로 주거용의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1〉 또한 지역별 실적을 살펴보면 10월까지 수도권이 47,248천㎡로 20.1% 감소하였고 지방은 49,286천㎡로 16.3%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축허가를 면적에 의한 것이 아닌 동수를 보면 금년 10월까지 192,902동이 허가되어 전년동기의 187,987동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건축물의 규모가 줄어든 대신 수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설경기 동행지표로서 공사가 실제 착수된 면적을 집계한 수치로 건설경기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건축착공면적을 살펴보면 건축허가 면적과 마찬가지로 주거용이 큰폭의 감소를 보였으나 교육사회는 허가와는 다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착공면적이 건축허가면적을 밀도는 것은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전년 4/4분기 중 급증한 건축허가 물량이 미분양주택의 증가로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용도별로는 주거용(12,810천㎡, 52.8% ↓), 상업용(20,258천㎡, 0.6% ↑), 공업용(13,953천㎡, 2.8

<표-2> 연도별 건축착공 동향

(단위 : 천㎡,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10월		
					전년대비		
용도별	주거용	34,587	31,503	28,433	32,753	12,810	47.2
	상업용	27,244	21,764	20,970	25,176	20,258	100.6
	공업용	12,909	13,720	15,080	16,165	13,953	102.8
	교육사회	6,439	6,992	7,530	8,666	6,310	83.6
	기타	10,101	10,208	12,857	13,899	8,421	74.7
구조별	철골조	89,645	83,006	83,382	94,576	59,960	77.0
	조적조	1,306	975	1,086	1,333	1,192	105.3
	목조	329	205	365	590	561	114.8
	기타	0	1	37	160	39	27.0
합계	91,280	84,187	84,870	96,659	61,752	77.5	

* 자료 : 국토해양부

% ↑), 교육사회용(6,310천㎡, 16.4% ↓), 기타(8,421천㎡, 25.3% ↓)으로 1~10월 누계치는 61,752천㎡로 전년동기대비 2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실적은 수도권이 28,081천㎡로 25.7% 감소하였고 지방은 33,671천㎡로 19.7%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표-2)>

아울러 건설선행지표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건설수주동향에 따르면 2008년 10월까지의 국내 건설공사 총수주액은 69조 9,87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5% 감소하여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표-3)> 발주자별로는 민간부분이 46조 5,660억원으로 전년대비 18.8% 감소한데 비해 공공부분은 19조

<표-3> 연도별 건설수주 동향

(단위 : 십억원,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10월		
					전년대비		
발주자별	공공	22,210	21,825	20,460	27,454	19,831	107.5
	민간	51,510	58,975	66,550	75,285	46,566	81.2
	제조업	7,482	8,117	9,740	10,371	11,846	148.5
	비제조업	44,028	50,858	56,810	64,914	34,720	70.3
	민자	3,918	2,493	3,888	5,536	3,574	92.4
	국내외국기관	136	196	103	284	16	5.9
공사종류별	건축	52,430	60,215	69,480	79,608	48,278	81.9
	주택	34,972	42,434	52,752	56,385	30,316	71.0
	비주택	17,458	17,781	16,728	23,223	17,962	110.6
	토목	24,802	23,089	21,396	28,800	21,611	103.2
	전문공사	542	185	125	151	98	76.5
합계	77,774	83,489	91,001	109,559	69,987	87.5	

* 자료 : 통계청, 최근년 「건설업통계조사」에 근거해서 총기성액의 54%에 해당하는 기성액 순위 상위업체

〈표-4〉 2007년 시멘트 수급실적

(단위 : 천톤, %)

구 분	수 요			공 급			재 고
	내 수	수 출	계	생 산	수 입	계	
1/4 분기	9,865 (100.8)	673	10,538	10,111 (98.0)	569	10,680	1,578
2/4 분기	14,177 (96.4)	940	15,117	14,396 (98.0)	642	15,038	1,499
상 반 기	24,042 (98.1)	1,613	25,655	24,507 (98.0)	1,211	25,718	
3/4 분기	12,390 (113.2)	726	13,116	12,822 (106.3)	505	13,327	1,711
4/4 분기	13,868 (90.3)	761	14,629	13,971 (92.5)	385	14,356	1,431
하 반 기	26,258 (99.8)	1,487	27,745	26,793 (98.6)	889	27,682	
합 계	50,300 (99.0)	3,100	53,400	51,300 (98.3)	2,100	53,400	

* 주 : 11월은 속보치, 12월은 추정, 크링카 수출 3,500천톤 별도. ()는 전년동기대비.

8,310억원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하여 민간부문과 대조를 보였다.

공종별로는 건축공사가 48조 2,780억원으로 전년대비 18.1%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택수주가 극심한 부진을 보이면서 29.0% 줄어든데 따른 것이며, 토목공사는 21조 6,110억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하였으나 민간·건축부문의 부진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시멘트 수급동향

가. 내 수

시멘트의 소비는 건설공사에 주로 사용되어 건설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아울러 외적요인인 일기(날씨)도 건설경기 못지 않은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건설경기과 일기에 따라 시멘트 수요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일기의 경우 평년의 연 강수량이 1,400mm 정도 이고 북태평양 서부에서 연중 28개 정도 발생하는

태풍은 이중 2~3개가 우리나라에 직간접의 영향을 미치는데 금년은 11월까지 발생한 21개의 태풍 가운데 직간접으로 영향을 준 경우는 없어 다행이었으나 강수량은 11월까지 1,330mm(서울 기준)로 동기간의 평년값(30년간의 평균강수량) 1,320mm 보다 소량 늘고 전년동기간의 1,200mm와 비교할 경우에도 강수량이 약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월과 2월은 평균 기온이 전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일기조건은 전년과 평년 수준을 약간 밑도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수의 분기별 전년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1/4분기 0.8% ↑, 2/4분기 3.6% ↓, 3/4분기 13.2% ↑, 4/4분기 9.7% ↓ 등으로 예상되어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1.0% 감소한 50,300천톤으로 예상된다.〈표-4〉

(1) 계절별 출하실적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위도 온대성 기후대에 위치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봄과 가을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북태

〈표-5〉 최근 10년간(1999년~2008년) 시멘트 내수의 계절지수 및 출하비

(단위 : %)

구 분	1월	2월	3월	1/4분기	4월	5월	6월	2/4분기	상반기	7월	8월	9월	3/4분기	10월	11월	12월	4/4분기	하반기
계절지수	56.8	58.2	105.9	73.6	118.6	120.2	112.3	117.0	95.3	93.1	95.8	98.1	95.7	118.6	122.3	100.1	113.7	104.7
구성비	4.7	4.9	8.8	18.4	9.9	10.0	9.4	29.3	47.7	7.7	8.0	8.2	23.9	9.9	10.2	8.3	28.4	52.3

평양 가장자리에 들어 무더운 날씨를 보이며 겨울에는 한랭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춥고 건조하다. 이러한 기후 변화속에 연중 건설공사는 봄과 가을에 집중되고 여름과 겨울은 우기와 흑한으로 비수기가 되는 등 계절과 일기의 상태에 따라 시멘트의 소비도 유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최근 10년간 출하의 계절지수를 살펴보면, 연간 평균치를 100으로 볼 때 1월과 2월은 동절기의 흑한으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60선에도 미치지 못하여 비수기임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으며, 3~6월로 이어지는 2/4분기와 10~11월이 연중 성수기에 해당하고 3/4분기와 12월은 100선에 위치하여 평균 정도의 출하수준을 보이고 있다.〈표-5〉

한편 분기별 출하구성비는 1/4분기 18.4%, 2/4분기 29.3%, 3/4분기 23.9%, 4/4분기 28.4%로 2/4분기가 피크를 기록하였고, 반기별로는 상반기 47.7%, 하반기 52.3%인 것으로 나타나 금년의 상반기 47.8%, 하반기 52.2%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수요별·품종별 출하실적

금년 시멘트 내수의 수요별 실적은 10월까지

41,507천톤 중 민수가 41,221천톤으로 99.3%를 차지하였으며 관수는 0.7%인 286천톤에 그쳐 지금까지 민수 비중이 최대의 실적을 보였던 2007년의 98.9% 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민수가 증가하는 것은 공공공사의 자체수급이 건설회사가 자체 조달하여 시공하는 형태로 바뀌고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도 민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른 현상으로 2006년과 2007년의 경우에도 대북 수해복구용으로 관수 공급한 200천톤을 제외할 경우 이미 2006년과 2007년의 민수 비중이 각각 99.0%, 99.2%에 달해 관수의 1% 미만의 시대에 진입하였다.〈표-6〉

한편 품종별 출하실적을 살펴보면 벌크 출하는 수입시멘트를 포함하여 10월까지 38,662천톤으로 93.1%로 파악되어 전년동기의 92.4% 보다 0.7%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연말까지의 실적을 감안하면 역대 최고의 벌크화율을 보인 지난해의 92.7%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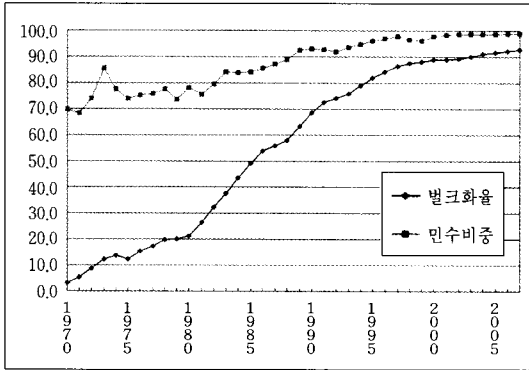
시멘트 벌크화율 추이를 보면 1970년 3.0%에 불과하던 것이 1980년 21.3%, 1990년 68.5%, 2000년 88.9%, 2007년 92.7%로 나타나 매년 늘어났으며,

〈표-6〉 2008년 수요별·품종별 출하실적

(단위 : 천톤,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10월	
							전년대비
수요별	민수	54,187	45,651	47,852	50,221	41,221	102.2
	관수	755	635	534	580	286	58.1
	민수비중	98.6	98.6	98.9	98.9	99.3	
품종별	포장	4,948	3,870	3,744	3,725	2,845	91.7
	벌크	49,994	42,416	44,642	47,076	38,662	102.4
	벌크화율	91.0	91.6	92.3	92.7	93.1	
합계		54,942	46,286	48,386	50,801	41,507	101.6

〈표-7〉 연도별 벌크화율 및 민수비중 추이
(단위 : %)



이러한 증가 원인은 신속, 편리한 잇점을 지닌 레미콘의 사용이 대규모 건설공사는 물론이고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일반화된 시멘트 소비 형태로 변화된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표-7〉

나. 생 산

시멘트는 원재료인 석회석을 광산에서 채광하여 분쇄 및 소성과정을 거쳐 중간제품인 크링카로 만든 다음 석고 등의 첨가재와 같이 미분쇄하여 최종적으로 시멘트라는 완제품으로 생산되어진다. 먼저 반제품인 크링카 생산은 시멘트 내수 감소 부문을 크링카 수출 증가분이 상쇄하여 전년수준인 46,300천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분기별로는 1/4분기 10,012천톤(4.1% ↑), 2/4분기 12,423천톤(0.3% ↓), 3/4분기 12,035천톤(2.1% ↑), 4/4분기 11,831천톤(4.8% ↓)으로 1/4분기에서 4/4분기로 갈수록 크링카 생산 증가율이 둔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완제품인 시멘트 생산은 1/4분기 10,111천톤(2.0% ↓), 2/4분기 14,396천톤(2.0% ↓), 3/4분기 12,822천톤(6.3% ↑), 4/4분기 13,971천톤(7.5% ↓)으로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1.7% 감소한 51,300천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내수가 1.0% 줄어든데다 시멘트 수출의 감소폭이 수입 감소폭을 상회한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업계 총 50개 기업의 금년 가동율은 74.8%로 예상되어 전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업계 최대 가동율을 보였던 1997년의 94.7%는 물론, 2003년의 83.4%과 비교할 경우에는 업계의 어려움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겠다.

다. 수출입

연초부터 이어진 환율 상승세와 꾸준히 증가해온 국제시세로 예년에 비해 수출 채산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 수출은 감소한 반면 크링카 수출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비해 최대 시멘트 수출 대상국인 미국으로의 시멘트 수출이 대폭 감소한 때문이며, 아시아·중동향 크링카 수출이 급증하여 전체 물량에서 크링카 수출 비중과 증가율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지난해부터 지속된 미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기인하여 2007년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일본 및 중남미 지역으로의 수출 또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반면 아시아·중동 지역으로의 크링카 수출이 전년 보다 대폭 증가하였고, 아프리카로의 시멘트, 크링카 수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수출실적(추정)은 6,600천톤으로 전년에 이어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종래 최대 시멘트 수입국인 미국의 건설경기 위축 여파로 수출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이처럼 수출물량이 증대한 것은 금년에도 이어진 우리나라 시멘트 내수 정체로 인해 수출을 통한 가동을 제고에 나선 결과로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수요 증가세와도 맞물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9월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가 가시화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신용경색과 실물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어 우리나라 또한 경제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는 SOC사업 확대와 4대강 정비사업 등 대형 토목사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으나 민간 주택건설 경기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

〈표-8〉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천톤)

구 분	2007년	2008. 1~11
미 국	2,240	1,059
나이지리아	631	940
방글라데시	79	777
일 본	775	712
앙골라	-	348
남아공	247	204
카타르	-	191
칠 레	43	178
베 닝	103	171
가 나	113	163
아이보리코스트	340	147
케 나	115	143
U.A.E	89	137

* 주 : 크링카 포함

여 내년에도 시멘트 내수 부진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올해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대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여 가동률 제고 수단으로서 더 이상의 수출 물량 증대는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도 수출대상국은 36개국으로 전년의 27개국과 비교시 9개국이 늘어 수출선이 다변화된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아시아, 중동지역으로의 수출물량 증대가 두드러진 가운데 방글라데시로의 수출은 전년보다 10배에 달하는 실적을 보여 눈에 띄었다.〈(표-8)〉

품종별로 보면 시멘트는 3,100천톤으로 전년대비 24.8%의 큰폭의 감소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나 크링카는 3,500천톤으로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57.8%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전체 수출물량에서 시멘트와 크링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예년과 달리 크링카 비중(53.0%)이 좀더 큰 것으로 나타나 종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시멘트 우위의 수출 양상에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다.〈(표-9)〉

2008년 사별 수출실적은 크링카 수출 포함 동양

〈표-9〉 연도별·품종별 수출현황

(단위 : 천톤)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추정)
크 링 카	1,420	1,945	2,210	2,219	3,500
시 멘 트	2,641	4,025	3,987	4,123	3,100
합 계	4,061	5,970	6,197	6,342	6,600

1,800천톤(11.0% ↓), 쌍용 3,600천톤(전년수준), 라파즈한라 1,200천톤(61.7% ↑), 한일 11천톤(전년수준)으로 추정된다. 라파즈한라의 수출량 증가는 아프리카, 중동으로의 크링카 수출이 늘어난 것에 기인하며 동양의 수출 감소는 미국으로의 시멘트 수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때문이다.

올해 내륙사와 연안사간 교환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동양과 성신간 발생하였으며 물량은 83천톤(72.0% ↓)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 수출 형태로 보면 벌크가 3,082천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포장은 18천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수년간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온 시멘트 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한 2,100천톤(28.0% ↓)으로 추정된다. 일본산은 1,560천톤으로 전년대비 5.2%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산은 540천톤으로 전년보다 57.5% 감소하여 수입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표-10)〉

이는 올해 가파르게 상승한 원화 환율변동과 함께 유연탄 가격 상승에 따른 일본산 및 중국산 시멘트의 수출 가격 인상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 수입국별 비중을 보면 중국산보다 상대적으로 저가인 일본산 시멘트 수입 비중(74.3%)이 지난해에 비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연도별·품종별 수입실적

(단위 : 천톤)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추정)
크 링 카	22				
시 멘 트	3,398	3,403	3,198	2,917	2,100
합 계	3,420	3,403	3,198	2,917	2,100

〈표-11〉 2008년 월별 크링카 및 시멘트 재고 추이

(단위 : 천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크링카	1,809	2,127	2,066	1,807	1,570	1,570	1,639	1,895	2,106	1,793	1,469	1,307
시멘트	1,492	1,657	1,578	1,389	1,479	1,499	1,575	1,607	1,711	1,524	1,632	1,431

* 주 : 12월은 추정

원화대비 엔화 가치 상승세가 지속되어 일본산 수입물량 누계치는 10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중국의 경우 중국내 시멘트 가격 상승세가 금년 여름까지 지속된데 따른 영향 또한 중국산 수입물량 대폭 감소의 또다른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재 고

시멘트는 대규모 설비를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생산능력의 변동이 쉽지 않은데다 생산지와 소비지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수송상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며 부피가 크고 중량물인 관계로 보관상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아울러 시멘트 수요는 계절과 건설경기에 따른 변동폭이 심하여 적정재고라는 개념 또한 항상 변동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금년의 시멘트 재고 추이를 보면 전년말 이월 재고는 1,448천톤으로 금년의 공급이 53,400천톤(수입 2,100천톤 포함), 수요가 53,400천톤(수출 3,100천톤 포함)으로 예상되어 연말재고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진다.〈표-11〉

금년에는 크링카와 시멘트를 합친 재고가 3,000천톤을 넘어선 경우가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없이 연중 지속되어 재고 추이로도 내수 부진을 가늠케 하였다.

마. 수 송

올해 시멘트의 국내 수송 환경은 미달러화 약세와 수요급등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경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진 가운데 전국적 규모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가 벌어졌으며, 철도노조 역시

총파업을 두번에 걸쳐 예고함에 따라 시멘트 공급이 몰리는 성수기에 수송상의 애로가 크게 발생했던 한 해였다. 금년 10월까지의 시멘트 수송량은 소폭이지만 내수가 1.6% 증가한 영향으로 2005년 이후 증가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시멘트 수송실적은 전년 동기간대비 1.3%가 증가한 44,577천톤을 수송하였으며 이를 수송수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선박이 17,024천톤을 수송하여 수송우위를 점한 가운데 철도가 14,192천톤, 육송이 13,361천톤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철도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1,402천톤(11%)이나 더 수송하여 수송량이 728천톤(5.2%) 감소한 육송과 비교할 때 수송 점유율면에서도 앞서 나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는 수출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선박 수송이 소폭 늘어난 가운데 금년 상반기에 화물연대의 전국적인 운송거부 사태로 인해 운송사와 화물연대간의 협상과정에서 육송의 운송료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운임부담이 커져 수송물량 중 일부를 철도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특히 시멘트 업계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 2006년 이후 그동안 운임이 동결되었던 철도수송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한편 국제적 금융위기에 촉발한 내수 침체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이어져 내년도 시멘트 수요에도 적신호가 켜짐에 따라 향후 시멘트 업계에서는 물류비 절감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여지며 물류기지 및 수송설비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